

‘불닭 신화’ 삼양식품, 장중 100만원 돌파 ‘황제주’ 등극

작년 5월10일 32만5500원서
94.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수출실적이 전체 외형성장 견인
밀양 2공장 가동편 유럽성과 기대”
KB 등 주요 증권사 목표가 상향



불닭볶음면 제품 모습.

/삼양식품

삼양식품의 주가가 12일 장중 100만원을 찍었다. 작년 5월 10일 32만5500원이었는데, 1년 만에 주가가 약 3배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삼양식품보다 높은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99만1000원)뿐이다.

경기 침체의 그늘에 있는 내수 업종인데다, 매출 2조원이 채 되지 않고, 라면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주당 100만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꿰찬 것이다.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를 놓고 실적과 성장세가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작년 매출 1조 7280억원, 영업이익 344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9.9%로 식품 업계 단연 1위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빼고 나면 이런 이익률을 내는 제조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있는 ‘황제주’

국내 최초 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점유율 70%까지 기록했던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4년 구독자 58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영국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국 런던 사람들의 반응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국내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다. 영국남자가 올린 영상은 조회 수가 1000만회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도전)를 하는 사람들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BTS,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 등 유명 인사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상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닭볶음면이 출시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삼양식품이 판매한 라면은 2022년 13억

개에서 2023년 15억개로 늘었고, 작년에는 18억개를 기록했다.

불닭 신화를 이끈 주역은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전 세계 라면 시장을 뒤흔든 여성이라며 김 부회장을 소개했다. 또 불닭볶음면 성공의 중심에는 김 부회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닭볶음면 탄생 비화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고교생 딸과 함께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을 산책했던 2010년 봄,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 한 볶음밥집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극도의 매운맛’ 라면을 만들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신과 딸의 입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매운맛인데도 그릇을 깨끗이 비

운 손님들을 목격하고는 매운맛에 대한 열정이 궁금해진 것이다.

곧바로 김 부회장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뛰어가 비치된 모든 매운 소스와 조미료를 3개씩 사 각각 연구소와 마케팅 팀으로 보냈고 나머지 하나는 집으로 들고 왔다고 한다. 식품개발팀은 개발에 닭 1200마리와 소스 2t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고추를 연구하고 한국 내 매운 음식 맛집도 찾아갔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고전중윤 전 명예회장의 며느리다. 기업 경영 경험이 없었던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이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자 1998년 삼양식품에 입사해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을 돕기 시작했다. 이후 저렴한 대파와 팜유를 찾기 위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지를 뛰어다녔다. 김 부회장은 “당시는 절박감만 있었다”고 회고했다. 경영이 안정화된 뒤에는 2006년 구성된 신제품 위원회를 주도해 결과적으로 불닭볶음면 신화를 탄생시켰다.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판다

불닭볶음면은 우상향하는 실적을 만들어냈다. 실적에 주가도 발을 맞췄다. 이날 종가는 94만6000원으로 황제주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2016년 말 주가 4만5500원에 비하면 폭발적인 상승세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7조1000억원이다. 시가총액 기준 62위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DS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4928억원, 영업이익 1129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41%씩 증가한 수치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1분기 우호적 환율 영향 속 전 분기에 이어 수출 실적 성장이 전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며 “1분기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 금액은 2억2900달러로 추정한다”고 했다. 예상이 맞다면 분기 최고 수출 실적이다.

박성호 LS증권 연구원은 “밀양 2공장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생산에 돌입하면 유럽 법인의 성장이 기대되며, 미국 관세로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잡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삼양식품이 MSCI 한국 지수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수많은 운용사가 MSCI 지수를 쫓는 상품을 운용한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호실적·정책수혜 기대 ‘52주 신고가’

주가 전일대비 6% 오른 1만2600원
1분기 당기순익 2582억 53% 증가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등도 최대실적

미래에셋증권이 호실적과 정책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6% 오른 1만26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만284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썼다.

주가 상승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5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사옥.

/미래에셋증권

세전이익은 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2조2000억원,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196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선진 시장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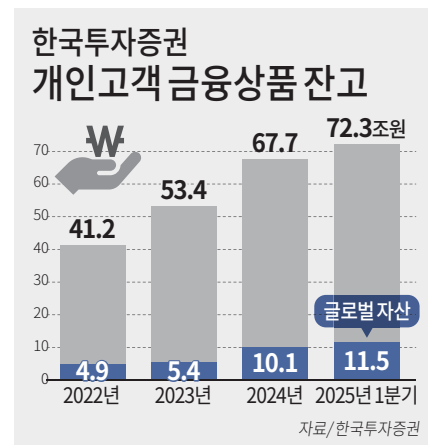
실적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혁신기업에 투자한 PI(자기자본투자) 포지션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함께, 국가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WM(금융상품 판매) 및 트레이딩 전략이 주요한 결과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와 WM 수수료 수익도 각각 1012억원과 784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 연금자산 잔고는 44조4000억원으로 성장세가 계속됐다. 퇴직연금 1분기 적립금 증가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 업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약 2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트레이딩 실적도 3257

억원으로 호조를 보였다. 기업금융(IB) 부문은 2018년 인수한 LX 판토스 지분 매각에 대한 실적이 반영됐으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총 8건을 주관하는 등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했다.

정책적 수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투자증권

매달 1.5조 신규자금 유입
개인 금융상품 72조 돌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72조원을 넘어섰다. 매달 1조5000억원 안팎의 신규자금이 리테일 채널을 통해 꾸준히 유입되며, 3년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12일 한투증권에 따르면 작년 말 67조7000억원이던 잔고는 올해 3월 말 72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입 자금의 23%는 펀드에 투자됐다. 고객 수익을 우선시하는 손익차등형 펀드, 글로벌 운용사와 협업해 출시한 월지급식 펀드 등 차별화된 상품 공급이 주요했다. 이어 채권(15%), ELS/ELB(10%), 발행어음(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산 규모는 11조5000억원으로 전체 금융상품 잔고의 16%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2023년(5조4000억원, 10%)과 2024년(10조1000억원, 15%) 대비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오너 리스크’ 더본코리아 목표가 1만9000원 제시

전반적 하락세… 고점대비 60% 하락

리서치알음은 12일 더본코리아에 대해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주가 전망을 ‘부정적’, 목표주가를 1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해 공모가를 3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2만3000~2만8000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가는 장중 6만

4500원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60% 가량 하락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는 상장 당시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들은 과도한 총 공모금액의 4.8% 수준인 49억원의 인수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오너 리스크, 프랜차이즈 업종의 성장 한계, 과거 상장폐지 사례 등을 인지하고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리서치알음은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더본코리아의 2025년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4128억원, 영업이익은 38.9% 줄어든 22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3066개였던 가맹점 수가 올해 말까지 2770개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가맹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통 부문은 흡소빙과 오프라인 채널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텔 부문은 수익성 모델템 부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 ‘빠다방’의 매출 의존도는 37.34%에 달하지만, 저가 커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성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본코리아는 최근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지원책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 연구원은 “해당 비용이 2025년 실적에 반영될 경우,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